

# 인도의 통상환경과 상관습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ommercial Customs and Practices in India

김희준(Hee-Jun Kim)

경주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 목 차

I. 연구의 목적  
II. 인도의 통상환경  
III. 거래관습의 시사점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de environment and examine a commercial practices for a successful launching of Indian market

In general, Indian trade environment is composed of a natural environment, religious peculiarity, history and politic and economic prospect. In order to understand Indian commercial practices and secure business achievements, its national character, mode of living, customs related to foods and social relations such as exchange of gifts, religious taboos, tendency of product preference should be recognized.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ostly that even though an excellent brand image, a good quality and an efficient sales network are a basic factor for making of a successful business, practically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a business customs and national character of indian people. Because business is accomplished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eventually.

Key Words : Trade Environment, Commercial Practices, Business Customs, National Character

## I. 연구의 목적

인도(Republic of India)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6-8%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BRICs<sup>1)</sup>의 일원으로 향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떠오르는 시장이며 중국과 함께 CHINDIA<sup>2)</sup>라는 명칭으로 세계경제 변화의 핵심 축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는 잘 확립된 과학의 기반, 수학과 영어에 있어서 학습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인력과 IT 부문에서 탁월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은 2004년 기준으로 인도의 수출액 680억 달러 중 16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액의 30배이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인도 최대의 경제도시 뭄바이에서는 해마다 수천 편의 영화와 TV드라마가 제작된다. 이제 인도의 영화산업은 할리우드와 뭄바이(옛 이름 봄베이)를 합쳐진 '볼리우드'에 집중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서남아시아인들은 위성TV를 통해 서남아시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영화와 음악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인도 시장은 전체인구 10억 5천만(2004년 현재) 중 3억이라는 거대한 소비자유흥유계층이 있고 풍부한 저임금의 숙련된 노동인구와 다양한 문화, 언어, 사람, 종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세계의 정보를 접하는데 익숙하다.

반면에 우리에게 '매혹과 신비의 나라', '가장 민주화된 후진국' 등으로 알려져 있는 인도는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200여년 영국 식민지 지배의 영향과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추산되는 절대 부유층의 존재와 10%에 해당되는 중산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극빈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 안면과 연고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상관습, 국제적으로 낮은 신뢰도, 정권과 종교 분쟁으로 인한 정치와 사회적 불안 요소, 열악한 사회 간접자본 등 현대적 공업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되는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현대화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분을 차별화하는 전통적인 카스트제도<sup>3)</sup>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인도의

- 1)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 그룹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BRICs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두 나라는 뜻으로 중국(China)과 인도(India)의 앞뒤 글자를 합성한 것으로 중국과 인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부르는 용어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5년도 세계경제를 전망한 《2005 세계 대전망 The World in 2005》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 3) 인도의 신분제도이다. 카스트에 따른 인도인의 신분은 브라만(승려),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사(상인), 수드라(일반 백성 및 천민) 등 4개로 구분되며 각 계급에서도 구체적인 직업에 따라 계급이 세분되어 바이사와 수드라의 경우 2천여개 이상으로 세분된다. 1947년 카스트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인도사회에서는 여전히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변화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우리에게 21세기에 새로이 떠오르는 거대 신흥시장임에 틀림없으며 그동안 과도하게 의존해 온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는 시장이기도 하다. 또한 2006년 1월 1일 14억여 명을 거느리는 세계 최대의 무역권인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sup>4)</sup>이 발효됨으로써 정치적 불신과 큰 경제 격차로 반목이 심했던 남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뭉치게 되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도의 영향력은 한층 더 커지게 되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일본과 아세안이 인도를 지원하고 있어 인도의 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도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1.1%를 차지하는 13번째 교역국이고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량의 1.6%, 수입은 0.8%이며<sup>5)</sup> 인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점유율은 2003년 2.2%로 13위였다가 2004년 상반기에는 3.3%로 8위로 올라서면서 경제 파트너로서 인도의 유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 시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대상이며 남아시아 무역의 교두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도 시장에 대한 통상환경을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국제통상 거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국민성, 생활양식, 거래관습 등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관련 기관들은 브랜드 이미지, 높은 품질, 효율적인 판매망에 대한 검토와 현지국에 대한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지국의 자연환경, 역사 등 문화에서 파생되는 생활관습 및 상관습 등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현지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의 통상활동은 현지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인도와 같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에 진출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존재하고 있다. 신분이 다른 계급 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며 이름에서부터 신분간의 차이가 있다. 카스트는 힌두교의 '업'과 '윤화'사상을 근거로 정당화되며 사람들에게 이를 숙명으로 여기게 한다. 카스트제도는 기원전 1300년께 고대 인도에서 인도-유럽 계통인 아리아족이 인도를 침입하여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지배층으로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성립했다.

4)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7개국의 자유무역협정. 2006년 1월 1일 발효됨.  
5) 한국무역협회, 2005년 기준. ([http://stat.kita.net/state/n\\_submain\\_stat.jsp?menuId=018subUrl=n\\_default\\_t-test.jsp?lang\\_gbn=kor^statid=kts&top\\_menu\\_id=db1](http://stat.kita.net/state/n_submain_stat.jsp?menuId=018subUrl=n_default_t-test.jsp?lang_gbn=kor^statid=kts&top_menu_id=db1))

## II. 인도의 통상환경

### 1. 사회적 측면

#### 1) 인종 및 언어

인도의 주민구성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계속되어온 침입의 산물이다. 토착민인 드라비다계와 침략자라 할 수 있는 인도아리아계로 대별되는데 인종, 언어, 문화를 달리하는 민족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최종 정착지 구실을 했으며 이곳에 정착한 이들 이주민들이 계속 뒤섞인 결과 오늘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오스트랄로이드를 망라하는 복잡한 인구집단이 출현했다. 따라서 인종적 특성보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도 주민들을 구분할 수 있는 1차적인 지표가 된다. 공식적으로 제1공용어는 힌디어이며 제2공용어는 영어이다. 그러나 언어 역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인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아삼어, 벵골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칸나다어, 카슈미르어, 말라얄람어, 마라타어, 오리야어, 펀자브어, 산스크리트, 신드어, 타밀어, 텔루구어, 우르두어 등 15개 주요 지방어로 구분하고 있으나, 더 세분하면 1,652종에 달하는 언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도의 언어는 크게 인도의 동부와 남부에 걸쳐 사용되는 드라비다어족, 그리스어, 라틴어, 게르만어, 슬라브어 등과 함께 인도유럽어족에 포함되는 인도이란어족, 중부와 동부 인도의 고산지역 및 산림지역에서 주로 하층민들에 의해 사용되는 오스트로아시아어족, 타이어와 중국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북동부 국경지대에서만 쓰이는 시노티베트어족 등 4개의 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드라비다어족과 인도이란어족은 큰 어족이며 오스트로아시아어족과 시노티베트어족은 소수 어족에 속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어족 사이에 상호 교환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 어족의 개별적인 특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sup>6)</sup>

영어는 인도 주민의 언어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8, 19세기 영국의 인도 정복과 함께 도입된 영어는 남쪽의 드라비다어권, 북쪽의 힌디어권 전부에서 쓰이는 유일한 공용어이다. 1950년에 제정된 인도 헌법에는 196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되, 그 이후에는 영어를 힌디어로 대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 사용을 선호하는 남부 드라비다어권의 영향으로 영어를 무기한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규가 개정되었다. 1967년 공용어에 관한 수정 법령에 의하면 국가 공무원 채용 시 반드시 힌디어와 영어 모두를 알아야 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연방정부와,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정부에서는 영어 사용이 필수적이다.

6) [http : //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80997&g=T2](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80997&g=T2)

## 2) 종교의 특징

인도는 세계적 종교 발상지인 동시에 근거지이다. 각 시대를 통해 인도인들은 강한 종교적 기질을 보여 왔다. 이러한 기질 때문에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등 고유 종교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등 외래 종교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의 전통 종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힌두교로 그 기원은 BC 2000~1500년경 아리아족이 성립시킨 베다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인도 국민의 약 83%가 믿는 힌두교는 강력한 국민 통합요소이기도 하지만 카스트 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BC 6~5세기경에 힌두교에서 맨 먼저 파생된 종교이다. 불교는 이 종교를 신봉했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 인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소카 왕 사후 불교의 영향은 점점 줄어들어 다시 힌두교에 우위를 빼앗겼다. 하지만 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몽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전파되어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현재 인도에는 불교도가 약 400만 명, 자이나교도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만교의 대안으로 출현하였으나 현재는 미약한 종교들이다.

시크교의 신도는 전체 인구의 2% 정도이며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절충적 종교로 발전하였고 단결력이 강한 투쟁적인 집단으로 분리주의 운동까지 일으키고 있는 종교이다.

외래 종교로는 정복자들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슬람교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이슬람교는 처음에 상인들이 들여왔으나 이슬람교도의 침입으로 16세기 무갈 제국이 건설되어 인도의 전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슬람교도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독립 당시 파키스탄으로 분리됨으로써 현재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인도 국민의 12% 정도이다.

그리스도교의 일종인 조로아스터교는 7, 8세기 이슬람교의 박해를 피해 인도로 흘러들어온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현재 그 후손들은 주로 뭄바이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BC 52년 사도의 하나인 토마가 인도 서해안에 상륙하여 몇 개의 교회를 건설하면서 처음 전파되었고 오늘날 그리스도교도의 수는 전체 인도 국민의 약 3%에 머물러 있으며 서남 해안지방과 아삼 국경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 3) 역사와 정치

인도의 원형은 상당부분 BC 1500~1200년경 아리아인들이 이란 고원을 넘어 인도대륙을 침입하여 정착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아리아인들은 오늘날 서양인의 선조로서 인도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인과의 혼혈로 지금의 인도인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갠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한 아리아인들은 상당한 세력을 지닌 도시국가들을 탄생시켰고 크샤트리아 출신인 찬드라 굽타(BC 324-298)는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국인 마우리아 왕조를 건립하였다. 그 후 여러 왕조를 통하여 아리아인의 고유의 힌두문화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으나, 12세기 이후 이슬람의 인도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1526년 티무르의 5세손

바베르에 의해 이슬람교 왕국인 무갈제국이 건설되었다.

한편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자 인도의 국가 지도자들은 영국을 지지하면서 막대한 수의 의용병과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대가로 전쟁 후 인도의 자치를 보장받기로 하였으나 1919년 발표된 영국의 인도통치법은 인도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에 1929년에 과격파인 네루가 국민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네루는 국민회의의 유일한 목적이 독립이라고 선언하면서 간디에게 국민회의의 전권을 위임해 주었다.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시켜 나갔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1947년 8월 15일 약 200년 동안의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인도인들의 소망을 이루었으나 인도대륙에서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온 인도라는 단일 국가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다.<sup>7)</sup>

인도에서는 네루가 초대 수상으로 취임하였고, 진나는 파키스탄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인도의 대외정책에 있어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동안의 상호 불신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sup>8)</sup>, 사법제도는 삼심제로서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이 중에서 하원의원은 545명으로 각 주 및 직할지의 지역대표 543명과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5년이다.

인도는 연방정부와 이들 주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실행되어야 할 여러 사항들, 즉 국방, 외무, 교통, 통신, 화폐 및 동전 주조, 고등법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한편, 그 외 경찰, 공중보건, 교육, 임산자원 관리 등 지방업무의 성격을 띤 분야는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 2. 경제적 측면

### 1) 경제적 환경

인도는 그 규모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한다. 세계 2위의 인구, 넓은 국토, 많은 인종과 종교를 가진 나라이다. 산업에 있어서 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반면에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산업에 있어서 인도는 첨단산업과 미발달한 1차 산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도의 저개발의 원인을 폐쇄경제와 계획경제체제, 오랜 식민지 생활 등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현실보다 종교적 생활에 관심이 많은 인도인의 종교적 성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7) 독립 후 인도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분열은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파키스탄으로의 분리를 초래했다.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i=180997&g=T48#T48>)

8) 행정부는 대통령·부통령·국무위원회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신 행정실무는 내각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저개발국이라 사회간접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임금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으며 또한 국내 산업의 미발달로 인하여 숙련노동자와 고급기술자들도 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인프라를 비롯하여 금융, 유통 등의 관련산업의 낙후성도 인도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상당부분이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도로, 철도는 높은 운송밀도에도 불구하고 체구실을 다하지 못해 산업 도로가 연중 극심한 정체를 겪는가 하면 부족한 전력 때문에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00%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가하고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US\$600로<sup>9)</sup> 매우 낮은 수준이며 빈부의 격차는 극심한 편이다. 인구의 73.2%가 농촌에서 살고 있으며 67%가 농업에 종사하고 국민 순생산의 40%가 농업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아직은 농업국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많은 업종에 걸쳐 근대공업을 일으킬 능력이 있으며 주변 여러 나라에 자본,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업력이 향상되고 있는 나라이다.

1951년 이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제8차 5개년 계획(1990-1994)이 시행되었다. 개발의 기본전략은 중공업을 일찍부터 일으키면 초기에는 그 효과가 적지만 먼 장래에는 발전이 가속화하여 경제자립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산업구조도 완만하지만 고도화되었다. 즉 농업 등을 포함한 제 1차 산업의 비율은 60%에서 40%로 내려가고, 공업, 전기 등의 제2차 산업은 20%에서 30%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액 수준, 수명, 식자율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개발도상국 특히 중진국 여러 나라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낮다.

인도의 경제는 공공부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이다. 민간부문은 그 활동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관세 장벽 및 대외통제정책에 의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개발 금융과 그 밖의 보호육성책을 누려왔다.

인도의 중공업은 정부 관리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데 이 중공업이 인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관리하는 경공업 역시 중요성이 인식되어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섬유공업은 영국 통치시대에 인도의 수출을 개척하기 위해서 발달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면화생산은 대도시인 뭄바이와 아마다바드에 집중되어 있고 모직공업은 편잡 지방에서 번창하고 있다. 황마는 생산지에서 가까운 캘커타 지역에서 직조된다.

한편 인도는 원자력 연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통신위성의 발사로 우주경쟁에 뛰어 들기도 하였다. 또한 인도가 영화산업을 이끌어가는 국가에 속한다. 인도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가정이 아직 적기 때문에 영화가 인도인들에게 흥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영화산업은 뭄바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도의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기술자를 다른 국가들보다 구하기 쉽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초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연구원이나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 쉽다는 점에서

9) 반면에 1인당 국민소득이 US\$10,000이상도 5,000만 명이나 된다.

인도의 노동시장의 조건은 매우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농작물 작황의 호조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생산 증대,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의 증대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인도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 인구의 70%가 종사하면서 인도 GDP의 약 27%를 차지하는 농업생산의 호조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를 일으켜 내수시장을 회복시키고 있다.

현재 인도의 경제는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의 독립 후 가장 건실한 상태이며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농업생산의 호조와 국내 소비의 진작, IT소프트웨어<sup>10)</sup>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 및 수출 호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도 IT 서비스 및 ITES<sup>11)</sup>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인도 IT산업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정치적 안정<sup>12)</sup>, 인프라의 개선, 민영화, IT 기술을 통한 제조업의 발전, 인력개발, 세계 경제에의 통합 노력 확대 및 수출 시장의 개척 등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적된다.<sup>13)</sup>

## 2) 대한민국 관계

남북 간 동시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62년 3월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후 1973년 12월 10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으며 북한 역시 1962년 영사관계 수립을 거쳐 1973년 12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편 경제문제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다. 양국 간에는 1974년 8월 맺은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1974년 8월에 문화협정이, 1976년 3월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양국은 한반도 및 서남아 정세를 포함한 역내 문제와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동북아와 서남아의 주요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는 양국 간의 협력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관계 발전은 경제, 통상 분야에서 특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 불과 수 억불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량은 점차 증가하여 2005년 현재 대한수입액 45억 9,700 만 달러, 대한수출액 21억 2,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sup>14)</sup>

10) 국제통계협회(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03년 조사보고서에서 인도의 IT시장은 연간 27.9%의 성장세를 보여 2006년경에는 1조9,610억 루피(미화 약 42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11) IT 응용 서비스(IT Enabled Service)

12)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PRS그룹은 인도가 경제적 리스크는 낮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3) 남아시아경제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http://www.kiep.go.kr/sub03/sub0301\\_list.asp?wcd=3](http://www.kiep.go.kr/sub03/sub0301_list.asp?wcd=3))

14) 한국과 주요국의 연도별 교역, 한국무역협회, 2006 ([http://stat.kita.net/state/n\\_submain\\_stat.jsp?menuId=018subUrl=n\\_default-test.jsp?lang\\_gbn=kor\\*staid=kts&top\\_menu\\_id=db1](http://stat.kita.net/state/n_submain_stat.jsp?menuId=018subUrl=n_default-test.jsp?lang_gbn=kor*staid=kts&top_menu_id=db1))



상호 투자 면에 있어서도 양국은 모든 국가들 간 관계에서 모범이 될 만한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1990년대 초 인도가 경제개방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는 부진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의 저력과 잠재성을 믿고 적극적인 대인도 투자를 감행, 인도 내 각 분야 시장점유율에서 큰 성공 거두고 있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한국의 최신 상품을 인도 시장에 판매하는 데에서 나아가, 인도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함으로써 인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Ⅲ. 거래관습의 시사점

#### 1. 국민성

인도는 인종박물관이라 부를 정도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현재 10억 5천만의 인구가 21세기 초에는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인도인의 성향에 대해서는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다양한 성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인도인들은 다양한 종교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편이며 생명을 존중한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의견이 대립되어도 큰소리로 상대방을 몰아 부치는 경우는 있어도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과 전통을 존중하며 상대방에게 도움 주기를 좋아하고 친해지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한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상대방의 신분 즉 나이, 직업, 학위,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아마도 그들의 카스트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를 종교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인도사람들은 수양생활과 종교생활에 관심이 매우 많다. 따라서 그들은 현실에 대한 혁신의지가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과 경쟁이 별로 없었으므로 기업 내의 자원을 잘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자들의 리더십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점진적인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을 쇄신시키고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튼튼한 기반과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인도인들은 행동은 느리나 영리하고 말 주변과 문장실력이 뛰어난 편이다.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계산에 매우 밝으며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요시하여 운명론적 현실에 충실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나 상대방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면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상거래를 하다가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가 발생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능하며 오

랫동안 영국의 식민지 및 계급사회에서 생활해 온 습성이 있는 관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 2. 생활양식

### 1) 식사 및 초대

초대는 통상 오후 9-10시에 시작되고 부패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더운 지방이라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며 특별한 주법은 없다.

인도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일 경우 입맛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그들이 식사할 때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친해지면 집이나 사교클럽으로 초대하기도 하는데 대화를 즐기는 이들은 저녁식사 전에 간단한 음료, 스낵, 술과 함께 2~3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초대를 받으면 3~4시간 대화는 기본이고 식사도 호텔에서 하는 경우 통상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식사보다는 대화에 동참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담 중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상대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되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선물

인도인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종교 휴일과 같은 날에는 거래하는 상대방이나 친구 및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인도인들 사이에는 주로 신상을 선물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선물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공식석상에서는 절대 선물을 받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선물을 받는다.

### 3) 종교, 금기사항

인도의 생활양식과 사고는 종교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종교가 인도내 존재하고 이러한 종교들 간의 대립은 사회적 갈등상황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인도 종교에 대한 비난은 금물이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반면에 인도는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나 최근에 타 종교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인 힌두교는 여러 가지 신을 가지고 있다. 즉 창조주 신이며 주로 연꽃위에 앉아 있다는 브라만, 생명유지의 신이며 야소에 무기를 들고 주로 반인 반수의 가루다를 타고 있는 비슈누, 파괴의 신이며 이마에 제 3의 눈이 있는 쉬바, 부와 행운의 여신이며 연꽃을 타고 있으며 이상적

아내의 표상인 락쉬미, 지혜와 성공의 신이며 코끼리 머리를 하며 상점에 많이 모셔져 있는 가네쉬 등이 있다.

인도는 종교적인 문제로 금기시하는 음식<sup>15)</sup>이 있기 때문에 초대나 식사 시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나 일반적 금기사항으로 서남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국민들이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몸에 대는 것을 싫어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4) 대인관계

인도인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중요시하며 부드러운 인간관계 및 안면이 중요하다. 서남아시아인 대부분이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 후 그 대가를 기대할 경우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인사하는 법은 영국 지배의 영향으로 서구화되어 있는 편이며 상류 계층인 경우 여성은 잘 나서지 않는다. 인사법은 악수가 보통이며 친한 경우에는 남자들끼리 좌우로 번갈아 가며 포옹한다. 호칭은 남자일 경우 극존칭으로 이름 위에 '샵'이 들어가며 일반 존칭으로는 '지'가 쓰인다.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Miss, Mrs, Madam 등으로 호칭하면 무난하다. 인도에서는 시간이 잘 지키지 않으나 최근 국제화 시대 부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 3. 상거래 경향

인도의 소비문화는 자기고유의 것을 지키려는 보수적 성향이 있다. 현대적 시설을 갖춘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센터가 별로 없는 대신 주정부가 운영하는 엠포리움이 있다. 엠포리움의 대부분의 물건은 비정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 전력 불안정으로 가전제품 고장에 대한 반응이 둔하며 최근 신흥 중산층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구매가 늘고 있다. 인도의 소비계층은 카스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 사회의 상류층은 약 1%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은 부, 권력, 명예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월급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다음으로 새로운 중산층이 있는데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며 컬러TV, 냉장고, 에어컨을 보유하고 소형 승용차를 소유한 부류이다. 대다수 극빈층을 제외한 서민층은 재봉틀, 라디오, 손목시계 등 생활기초 상품구입이 소비의 1단계이다.

인도에는 4대 상권이 있다. 뉴델리, 뭄바이, 캘커타, 마드라스로 대표되는 이곳은 인도 인구 전체의

15) 미국의 패스트푸드 전문업체인 맥도널드사는 인도시장에 햄버거를 판매하기 위해 기존의 쇠고기를 사용하는 대신 닭고기나 양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힌두교 주민들이 소를 성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지관습을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사인 인도인 소유의 소규모 즉석음식 전문점과 영국 워피사 체인점 등을 리드하여 판매에 성공하고 있다.

55%이며 소비규모는 20%를 차지한다. 뭄바이는 비교적 신용도를 중시하는 상인으로 인구 1,300만 명의 최대 상업도시이고 뉴델리는 인구 940만 명의 북인도 상권의 중심이며 소비 문화수준이 매우 높다. 마드라스는 인구 약 540만 명의 남인도 상권의 중심이며 상인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섬세하며 온화한 성격에 감정적이고 보수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캘커타는 인구 약 400만 명의 동인도 상권의 중심으로 정치적 성향은 강하나 경제 활력은 쇠퇴되어 있다.

유통산업을 살펴보면 인도는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에서의 투자가 아주 낮은 수준이며 그 영향으로 유통산업 또한 취약하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어서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도로연장이나 철도연장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지만 넓은 국토에 비하여 비교적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인도의 경쟁력의 원천요소들 가운데 향후 인도의 국제경쟁력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국내수요이다. 우선 시장 잠재력을 살펴보면 인도 국민 중 약 4천만 명의 생활수준은 미국 서유럽 또는 한국인에 못지않을 만큼 부유한 상류층이다. 예를 들어 컬러 TV시장의 경우 인도는 이미 연간 1백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일본내수 시장과 맞먹을 전망이다. 자동차 시장 역시 날로 커지고 있고 농업부문의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나지만 연관 산업인 식품가공 산업이 낙후되어 있어 시장 개척의 여지가 매우 크며 서비스 부문 또한 거대시장이 될 전망이다. 많은 인구에 의한 거대한 국내시장은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흔히 인도는 넓은 국토, 많은 인구, 성장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중국과 비교된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한발 앞서 있음이 분명하고 우리의 관심도 중국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인도는 오래 동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 특히 그들이 그 동안의 오랜 역사에서 보여 주었던 다양성의 조화능력은 현재의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에서 비롯된 종교적 갈등과 전통적 신분계급인 카스트제도로 인한 인도 최대의 약점인 정치적 불안정을 낳고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인도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자라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시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의 나라로 평가된다. 중국과는 달리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우리나라와 상이하고 복잡한 인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된다면 인도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시장과 달리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을 제치고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거대시장이 될 것이다.

인도는 정부와 사회단체의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지만 카스트제도와 종교분쟁의 영향으로 정부정책이 반대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정치적 불안정에 기인하여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신경제 이후에 정치적 안정성과는 달리 정부정책의 경우 국제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상당히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장개입이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그 예로 의약품, 원유, 철강, 비료, 주요원자재에 있어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

지만 관리가격제도의 경우 점차 품목별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정책은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통제 폐쇄적인 요소가 많은 편이며 그동안 배타시 되었던 문제점이 단시일 내에 치유되기도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신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주도 경제운영으로 민간부문 성장은 매우 부진하여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기업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인도는 종교의 나라이다. 인도사람들은 현세의 삶보다 수양과 종교생활에 관심이 더욱 많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혁신의지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별로 없었으므로 기업 내의 자원을 잘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이 약간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경영자들의 경우 점진적인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쇄신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기반과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경영자들도 자신들의 이러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치열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세계정상급의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60년대에 제트기를 생산하였고 핵무기, 인공위성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80년대 인도정부가 집중 육성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여건의 미비로 인해 고급두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sup>16)</sup> 반면에 일반 근로자는 많은 인구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교육수준 및 근로의욕이 낮아 생산성이 한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부관료 주도의 폐쇄경제체제하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영풍토는 장기전략 수립 및 국제 감각, 환경적응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자 양성을 저해하여 왔다. 반면에 왕성한 기업이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최근 경제 자유화와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가들 역시 혁신 의지, 리더십, 위기감수능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4. 거래 시 유의사항

인도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계획 아래 움직이는 중국과는 달리, 자유분방함 속에 나름대로의 경영철학과 상관습 전통이 있다. 서남아시아에 속하나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비즈니스에서는 유럽인의 논리성을 따르고 개인적으로는 아시아인의 정에 의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다.

인도상인은 근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사고는 계산에 따른 철저한 단기 이익 주의이다. 상담 시 거

16) 최근에는 인도의 IT산업의 잠재력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우수한 인도인들이 역으로 인도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래조건을 철저히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원칙을 고수하여 전체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인도인들은 상대방의 실수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며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편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영국의 영향으로 인해 계약에 관한 문화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며 본 계약이 아닌 사안에 대한 통보나 요청도 반드시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기업 내 결정권은 사주에게 있으며 로비가 어렵고 입찰인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직수입이 가능한 업체라면 반드시 의사결정자인 대표(대기업의 경우 핵심 간부)를 만나야 한다. 100대 그룹이라고 해도 의사결정자는 핵심 간부인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면 일단은 핵심 간부를 먼저 만나야 하지만 2단계에는 반드시 대표를 만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규모가 꽤 큰 기업이라도 사주와 핵심 간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율과 위계질서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인도상인들은 향후 대량 물량을 구매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경쟁업체를 예로 들며 낮은 가격과 독점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이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다른 나라와 똑같이 당장 구매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혹은 일정 수량 판매조건부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신용장을 요구해야 하는데 은행의 신용장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 수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며 신용장 수취 후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을 했더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신용장 중심의 대금결제가 잘 이루어지다가 은행 한도를 내세워 외상거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기술 이전 등으로 로열티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돈이 부족해 나누어 지불하겠다는 것을 승인해 주면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금결제 문제는 은행권을 통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인도 정부의 정책상 갑자기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도 생기므로 매년 2~3월 발표되는 수출입 정책을 유심히 살피고 신규 품목의 경우 정부 규제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말에는 신용장 개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 시에 이 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철저한 힌두교도이며 채식주의자다. 이들은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회사 공장이나 사무실에도 힌두신을 모시는 장소가 따로 있을 정도이므로 종교 관련 비방이나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도는 이름만 들어도 사회계급을 알 수 있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으나 비즈니스맨에게는 신분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 성실하게 대하면 된다.

전반적으로 인도 상인과 상담할 경우에는 우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대

부분의 동남아 상권을 쥐고 있는 화교들은 뜻만 통하면 식사자리에서도 상담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인도인들은 논리 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상담을 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인도인들의 논리성은 단순한 상담보다는 타협이나 협상이 요구되는 합작 건이나 대형 프로젝트 등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대화는 하나의 즐거움으로, 어찌 보면 협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명분과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인도인들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상담이라도 이를 수용한다.

인도상인은 손익에 대한 계산이 빠르며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그 누구라도 손해 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므로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상담해야 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상담을 조기에 결렬시킬 수 있다. 대기업의 사장인 경우 종교에 근거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므로 먼저 화내고 흥분하면 결국 상담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IV. 결 론

인도는 향후 우리에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다가올 것이다.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영국 식민지 지배와 극심한 빈부의 격차, 전근대적인 상관습, 낮은 신뢰도, 정치와 사회적 불안, 사회 간접 자본의 낙후와 현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카스트제도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21세기의 떠오르는 시장임에 틀림없다. 거대한 인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산업의 경쟁력, 영어 구사 능력, 과학과 수학의 발달 등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잔존 관료주의 철폐, 산업별 직접투자 확대, 인프라 확장, 관세와 세금의 합리화, 공기업의 민영화 박차, 정부재정 적자 축소 등에 대한 노력이 더해지면 인도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 분명하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통상 파트너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수출환경 조성 및 수출산업화 촉진, 해외협력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장인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브랜드 인지도, 우수한 품질, 효율적인 판매망에 대한 경쟁력의 여부와 수출입 통계나 투자요건 등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도의 통상환경과 국민성을 포함한 상관습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지역, 충적평야지대, 데칸 고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영토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종은 토착민인 드라비다계와 침략자라 할 수 있는 인도아리아계로 대별되는데 인종, 언어, 문화를 달리하는 민족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10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보유하고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도인에 대한 국민성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으며, 생활 관습과 거래 관습 또한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대체로 인도인의 성향은 다양한 종교의 영향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한다. 행동은 느리지만 영리하고 말 주변과 문장실력이 뛰어난 편이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밝고 운명론적 현실에 충실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관습은 종교에 따라 금기시 하는 음식이 있으며 종교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인도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거래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점은 인도인들은 상대방의 실수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며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편이므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계약 문화가 발달되어 계약서 작성 시 자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이 외에도 대금결제 부분을 포함한 거래의 전 과정을 문제점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인도인들의 거래 문화를 알게 되면 그들의 상관습과 국민성을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 조정할 수 있을 때 인도인들과 진정한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도 경제가 부상되어 가고 있는 이 때가 인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와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기업체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 고 문 헌

- 강석경, 인도기행, 매일경제신문사, 2005. 9  
 김형준, 이야기 인도사, 청아출판사, 1998. 7  
 문철우, 인디아 쇼크, 매일경제신문사, 2005. 9  
 변진현 역, 무굴제국 : 인도 이슬람왕조, 시공사, 1998. 12  
 신석현, 인도비즈니스, 인도코리아센터, 2004. 12  
 이운용, 내일은 인도다, 인도코리아센터, 2004. 7  
 이창식 외 역, 인디아 그 역사와 문화, 가람기획, 1999. 11  
 이광수, 인도문화, 부산외국어대학출판부, 1999  
 이한상, 인도경제와 사회적 여건, 다해, 2003  
 이호건, 김선광, 이우채, 김희준, 해외지역연구, 동성출판사, 1999. 9



- 정병조, 인도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5. 2
- 조승연, 인도에서 만나는 종교와 문화, 민속원, 2005. 5
- 홍대길, 꿈틀거리는 11억 인도의 경제, 신구문화사, 2004. 6
- 허순용, 인더스 문명과 인도사, 효리원, 2002. 6
- 산업자원부, 지역별 무역수지, 2005
-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주요국의 연도별 교역, 2005
- \_\_\_\_\_, 국가통상정보, 2005
- 한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2005
- 주인도 한국대사관, 인도경제 개황, 2005
- 주한 인도대사관, 인도소개, 2005
- 인도, 엠파스 백과사전, 2005
- World Tour Guide 세계를 간다 <인도>, 중앙일보사, 1994
- 원더풀 월드 10 <인도·이스라엘·중동 편>, 동아출판사, 1991
- 2001 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2000
- India'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New Delhi : South Asian Publishers, 2000)
- Khanna, V. N., Foreign Policy of India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2002)
- Prospects of Trade and Investment in India and China," International Studies , Vol. 39, No. 1, 2002.
- [http : //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80997&g=T2](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80997&g=T2)
- [http : //100.empas.com/entry.html/?i=173287&Ad=1](http://100.empas.com/entry.html/?i=173287&Ad=1)
- [http : //www.kiep.go.kr](http://www.kiep.go.kr)
- [http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http : //www.kita.net](http://www.kita.net)
- [http : //www.mocie.go.kr/index.jsp](http://www.mocie.go.kr/index.jsp)
- [http : //www.mofat.go.kr/ek/ek\\_a001/ek\\_inin/ek\\_01.jsp](http://www.mofat.go.kr/ek/ek_a001/ek_inin/ek_01.jsp)
- [http : //www.bseindia.com](http://www.bseindia.com)
- [http : //www.nseindia.com](http://www.nseindia.com)
- [http : //www.indiabusinessmic.in](http://www.indiabusinessmic.in)
- [http : //www.finmin.nic.in](http://www.finmin.nic.in)
- [http : //www.sebi.gov.in](http://www.sebi.gov.in)
- [http : //www.meadev.gov.in](http://www.meadev.gov.in)
- [http : //www3.joins.co.kr/mme/world/map/](http://www3.joins.co.kr/mme/world/map/)
- [http : //www.indembassy.or.kr/India\\_AProfile/History\\_InKr.htm](http://www.indembassy.or.kr/India_AProfile/History_InKr.htm)
- [http : //www.worldindia.co.kr/india/default.htm](http://www.worldindia.co.kr/india/default.htm)
- [http : //www.indo.or.kr/frame.html](http://www.indo.or.kr/frame.html)
- [http : //www.tourindia.com/htm/homepage.htm](http://www.tourindia.com/htm/homepage.htm)